□동양학에세이

도와 도교를 통한 참된자아찾기

동양학에 대한 우리의 관심들이 증가하는 이때 우리에게 가장 친숙하고 편한 도에 대해 접근하려한다.

유교와 함께 우리 민족 대대로 맥락을 같이해온 도교와 그 뿌리에 대해 고민하고자 한다.

도와 도교. 그리고 도선 사이의 차이와 유사점을 살펴보고 동양학에 대한 어려움을 전반적이고 쉽게 에세이 형식으로 다룸으로써 독자의 관심을 더욱 고조 시키고자 한다.

참된 자아는 바로 우리들 스스로의 맘속에 있음이요, 무릉도원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에 따라 현실에 맞게끔 유유자적 함으로써 발견하리라. 〈편집자〉

이 강 수
〈연세대 철학과 교수〉

장자, 현실 세계속에서 자유자재 하고자
노자, 자기 본래 마음이 흐르는대로
현실속에서 자연에 따르는 삶 추구

양주가학(楊州駕鶴).

중국 육조(六朝)시대 은중감(殷仲堪)이라는 사람은 노자 도덕경을 읽지 않으면 말할 맛이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당시 지식인들은 전원에서 노자 도덕경을 읽고 차를 마시며 담론하기를 즐겼다. 이러한 선비들의 풍류를 청담(淸談)이라고 한다.

그보다 먼저 동한(東漢)시대 장도릉(張道陵)은 노자를 교조(敎祖)로 추존(追尊)하고 노자 도덕경을 경전으로 삼아 도교를 창도하였다. 도교에서는 불로장생하는 신선(神仙)이 되기를 목표로 한다.

사람들은 짧지않은 생명을 부여받아 일회적(一回的)으로 산다. 그 생명은 귀하다. 고귀한 생명을 어떻게 해야 잘 가꿀 수 있을까?

사람들은 흔히 돈과 권력과 명예를 추구한다. 사람이 한평생 사는데 적지않은 비용이 든다. 그래서 돈이 필요하고 그 돈을 벌고 지키는데 권력과 명예가 유용할 수도 있다.

재래사회에서 돈과 권력과 명예를 한꺼번에 얻으려는 사람들은 장상(將相)의 길을 추구하였다. 장수 또는 재상이 되면 풍족하고 편리하게 살 수 있었다.

반면에 이와 전혀 다른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같은 세상적 가치들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갖지 않고 전원생활을 즐겼다. 바쁠 것도 서두를 것도 없다. 해 뜨면 일어나고 해 지면 쉬며 필요한 만큼 일하여 먹고 마시며 등산임수(登山臨水)하면서 자유롭게 살고자 하였다. 이러한 삶을 신선처럼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옛날 고사에 양주가학(楊州駕鶴)이라는 말이 있다. '가학'은 학을 탄다는 말이고 '양주'는 물산이 풍부하고 미인이 많이 들끓은 유명한 중국 강남(江南) 지방 이름이다. 어떤 사람에게 양주자사가 되고 싶으냐 아니면 학을 타고 다니는 선선이 되고 싶으냐 하고 물으니 그 두가지에 모두 마음이 동화됐던지 그 사람은 '양주가학'이라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양주자사가 되어 세상적인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면서도 학을 타고 다니는 신선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으랴! 그러나 양주자사의 길이 있고 또 신선의 길이 있다. 그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다른 하나를 포기하지 않을 수 없다.

탈속(脫俗).

조선조 숙종 때 은둔자처럼 살았던 북애자가 쓴 글에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무릇 힘으로써 사람을 복종시키고자 하는 자는 그 힘이 다하면 배반 당하게 되고 재물로써 사람을 부리고자 하는 자는 그 재물이 없어지면 그 사람들이 떠나기 마련이다.

명예는 실체의 그림자와 같은 것이어서 내가 명예를 사모하다가 헛된 것을 하게 되면 어찌하랴! 명예 또한 바라지 않는다.(揆園史話 序文).

부질없이 세상적인 일들에 얽매여 악착같이 살지 아니하고 속세를 떠나 산수를 즐기며 시원스레 살고 간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세상에 이름을 남기고자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행적을 자세히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런 저런 역사책에 드문드문 나타나는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상고시대부터 도선(道仙)의 전통이 있었다. '도선'이라는 명칭은 도가·도교·신선 등의 개념과 얽혀있다. 도가(道家)는 노자와 장자의 사상을 주축으로 하는 학파이고 도교는 종교이며 신선은 신인(神人)과 선인(仙人)을 합하여 이름한 것이다. 이들은 세상의 명리(名利)에 급급해하지 않고 발속하여 살아가고자 한다.

장자 '양생주'(養生主) 편에 들쭉과 새초롱에 관한 이야기가 실려 있다. 진펄 속의 들쭉은 먹이를 찾으며 사는 것이 힘들지라도 결코 새초롱 속에서 길러지기를 바라지 않는다. 이 그 길이 멀고 험하며 강과 산도 있을 텐데 수레와 배도 없이 어떻게 갈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하여 시남의료는 '자기를 비우고 세상을 살아감'(虛己以遊世)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자기를 비우고 살아가면 구태여 산과 물을 건너 머나먼 남녘 나라에 가지 않더라도 신선처럼 살 수 있다. 그래서 장자는 피세(避世)를 주장하지 않고 현실세계속에 살면서 자유자재 하고자 하였다. 자연에 따르라.

도가에서 추구하는 이상적인 삶은 자연에 따르는 도이다. 무릉도원(武陵桃園)이 별난 세계에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가 몸담아 살고 있는 세계속에서 자연에 따라 살아가면 그곳이 바로 낙토(樂土)이다. 다양하다. 그러나 어떤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몸과 마음을 오래토록 유연(柔軟)하게 가꾸고 기(氣)와 혈(血)이 잘 통하게 하여 무병장수하고 연년익수(延年益壽)하고자 하는 목표는 같다.

노자와 장자는 허정(虛淨)을 중시하였다. 자기 마음속에서 외물(外物)에 끌려갈 수 있는 요인을 없애면 어떤 사물·사건에도 동요하지 않을 수 있다. 이를 허정한 심성이라고 한다.

허정한 심성을 되찾는 방법으로 장자는 심재(心齋)와 좌망(坐忘)과 같은 복수한 수련공부를 제시하였다. 심재란 마음을 재계하는 것이다. 제사의 식을 앞둔 사제(司祭)처럼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 심재이다. 심재의 극치는 허(虛)의 세계를 자기 내면에서 체득하는 것이다. 좌망은 정좌하고서 자기자신과 외부세계 그리고 천지만물 일체를 잊어버리는 것이다. 이는 마치 불교의 참선과 같다. 호흡조절과 정신집중 그리고 운기(運氣)가 잘되어 어떤 비약이 있게 되면 곧아(沒我)의 경지에 들어갈 수 있다. 자기 의식이 녹아버리고 자아와 비아(非我)의 간격이 소멸되면서 천지만물과 내가 한몸이 되는 특수한 체험이 있게 된다. 이러한 체험을 지닌 사람은 일상적인 자아의식에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천지만물의 본성인 자연에 따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이를 자연에 따르는 삶이라 한다.

세시봉

배종근 취재부기자

왜곡된 인식과 바로잡을 역사

지난 반세기 동안 지배세력과 보수적 언론, 그리고 제도교육이 역사를 뒤엎고 비틀고 감추어 민족사를 후퇴시킨 것을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비판하고 대처하겠다는 결의를 담은 뜻깊은 모임인 '바른 역사를 위한 민족회의'가 지난 15일 출범했다. 민족회의는 통을 울리면서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일제 잔재 청산이 이승만 정권에 의해 좌절된 이래 민족의 가치판단 기준을 거듭하고 있다"고 선언했다.

요즈음 조선일보사가 '현대사를 바로 세우자'는 명분아래 대대적으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재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재평가 시업의 일환으로 지난 5일부터 예술의 전당에서 '이승만과 나라세우기'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조선일보사는 그동안 축적돼 온 학계의 연구성과를 "변별력 없는 총체적 부정의 경향"으로 매도하고 이승만을 건국의 영웅으로 미화해 역사를 왜곡시킨고 있다. 이승만이 '외교 독립론'으로 항일운동을 주도했다는 평가, 그의 '용미론'이 국익에 큰 도움을 주었다는 해석, '남한 단독정부론'이 국제 정세를 꿰뚫어본 절과로 건국의 초석이 되었다는 평가, 3선 개헌이나 3·15부정선거 등은 그 자신이 아니라 측근들에 의해 저질러졌다는 주장 등이 이러한 역사왜곡의 대표적인 예다. 특히 '이승만과 나라세우기'전시회에 중고등학생들이 '역사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단체관람하는 등 젊은 층까지 왜곡된 인식이 확산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승만이 청년시절부터 독립운동에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목숨도, 가족의 안전도 아랑곳하지 않고 독립투쟁에 헌신한 이들에 비하면 그는 미국에 독립을 청원하거나 동포들이 모아준 자금을 석연치 않게 쓰곤 하던 이항속의 독립운동가였다. 더구나 8·15되 그는 친일 지주와 자본가들이 주도하던 한민당의 등에 업혀 권력을 잡는 길을 택했다. 그리고 48년 단독정부가 들어선 뒤 반민족행위자 응징을 알게 모르게 방해하고 탄압했다. 그는 역사적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민족의 지도자라기 보다는 대통령에 대한 끝임없는 집념을 가진 정략가의 성격이 강했다. 이승만의 집권으로 친일파가 득세했고 독재의 선례가 남았으며 올바른 역사의 정립이 처명타를 입은 것이다. 이승만이 헌법을 유린하면서 영구집권을 꾀하다 4월혁명으로 권좌에서 쫓겨난 사실도 '거대한 생애'란 말인가. 해방 50년이 되도록 일제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책임은 당연히 이승만에게 돌아야 한다. 공과를 분명히 하자는 주장은 일리가 있지만 이승만의 외교 지상주의나 임시정부 하의 분파적 행동, 독재정치까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통치의 지속성과 효율성만을 앞세운 언론의 캠페인은 '남한 단독정부 수립=근대적 국민국가 성립'이라는 해석으로 결국 분단과 독재를 정당화하고 그동안의 모든 개혁 움직임을 부정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반민족행위자 처벌과 일제 잔재청산을 좌절시킨 이승만을 '거대한 생애'를 걸어간 인물로 영웅화하는 의도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朔風

따뜻한 눈빛만으로도 우리는

낮과 밤이 다른 서울역의 겨울을 보내는 이들이 있다. 서울역의 반갑지 않은 밤손님들, 긴긴 겨울밤이 두려운 사람들, 소설속에 나오는 배경설명이나 주인공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서울역의 낮과 밤이 다르다고 하니 얼핏 이른 새벽 문을 여는 남대문의 시장정도를 연상하는 이들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울역을 한번쯤 찾은 기억이 있는 사람들 특히 자정이 가까워 마지막 기차를 기다려본 이들은 어느정도 이해가 갈지도 모르겠다.

오가는 수많은 인파로 항상 북적대는 서울역 대합실, 이곳 한켠에는 2백50여석 규모의 '만남의 광소'라는 곳이 있다. 저녁이 오면 얼핏 보기에도 열차 출발 시각을 기다리는 여행객으로 보이는 3백여명의 사람들이 추위를 피해 옹기종기 모여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남루한 행색을 한 그들은 다름아닌 하루종일 오갈데 없이 거리를 헤매다 그저 잠잘어라도 구해보고자 모여든 부랑인들임을 금방 알 수 있다.

이들말고도 지하도 한구석을 자리잡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들만의 안식처(?)를 마련해 살아가는 사람들의 수를 함하면 정확한 숫자는 파악할 수 없지만 서울역 인근에만 해도 수백명이 넘는다고 한다.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라 할 이들 겨울철의 노숙자들이 어떠한 연유로 왜 그런 생활을 하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지 관심을 두고 있는 이는 그리 많지가 않다. 그들 또한 노숙을 단속하는 철도청공안원들과 구정직원들의 부산한 움직임과 여행객들을 상대로 구걸해온 5천-1만원의 돈으로 밥 사먹고 추위를 녹일 소주 한병사는 것으로 만족할뿐 더이상의 관심을 두려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일을 하고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는 소외된 자기자신에 대한 포기인 동시에 사회에 대해 더이상의 기대를 바랄수 없는 당연한 처지의 결과 일 수도 있다.

시회가 온통 세계화, 국제화 시대를 준비하며 긴장된 하루하루를 보내는 그들에 대한 책임은 일차적으로 분명 본인들의 무능이나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에 있다.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해결의 관점에서 볼때 단속후에 이들을 수용할 수용시설이 부족해 다시 거리로 내모는 악순환을 되풀이하는 정부의 복지예산의 부족 등 사회정책의 미흡을 들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을 만나라 이국인 대하듯 바라보는 우리들의 시각이 바귀지 않는다면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가 지난 지금 이시각에도 그들은 얼어죽지 않기 위한 생존의 몸부림을 계속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자고나면 서로 밤새 안녕이라는 말을 주고 받으면서…

(重患者)

CHUNG MOON LANGUAGE INSTITUTE CM
언어로! 세계로!
영국편
Everybody talking about…
영일중불독
청문외국어학원
종로2가 종로서적뒤 TEL. 738-5151

프랑스語
프랑스語의 프랑스文化의 만남은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alliance Française
'95.3·4월 학기 개강 : 3.2(목)
BEF Ⅰ Ⅱ, MA Ⅰ Ⅱ, NSF Ⅰ Ⅱ Ⅲ, AP, ARC, ESP Ⅰ Ⅱ, 자유 회화반, 시사 뉴스반, 동시통역반, 독해작문반, 상업 무역 불어 및 비서직 학위 준비반, 비디오, 시청각반, DELF·DALF 준비반.
'95 알리앙스 주관 시험
● DELF 시험 신시
프랑스 정부 교육성 주관하의 프랑스어 지식 및 구사 능력 학위증 발급
● 상업 무역 불어 및 비서직 학위증
프랑스 상공 회의소 주관 학위증 수여
유 학 상 담
•études en France
•voyages
•stages de langue
어제든 알리앙스 에서 전화하세요.
'95. 5·6월학기 언어연수
seoul-centre ☎ 755-4972, 5702 (종구)
nam-seoul ☎ 555-1125, 1126 (강남)
프랑스語의 프랑스文化의 國際學校
세계 100여개 주변 1000여개의 알리앙스
Alliance Française
APPRENDRE LE MONDE ENTIER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학급에 열명 안팎의 학생만을 등록시키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시켜온 학원에 나가 영어 회화 졸업을 하기로 직정하신 분이라면 외면 할 수 없는 곳
선생은 모두 자격있는 서양 사람이요, 학생은 모두 사귀어 들만한 여러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이 곳
들어가기 좀 힘들지만, 허겁지겁 와서 보채지 말고 좀 미리연락하면 순서와 영어 수준에따라 공평하게 입학시켜 주는 곳.
잇속 때문에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 재단의 연구사업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영어 담당 교사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곳.
제 140기 수강생 모집
●개 강 : 1995. 3. 6 개강
●강 사 진 : NATIVE SPEAKER
●강의시간 : 1일 75분 주 5일
●반 편 성 : 8~13명씩 7단계
● 미국·영국 개방 어학연수 상담
재단법인 언어교육 부설 언어교육 학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호텔뒤 737-4641(대)

軍 컴퓨터 O·A 병 모집
육군참모총장위촉처
• 고졸이상 17~26세
• O·A 행정병 주특기부여
• 영장 본원수령단독임영
• 6주 훈련후 상급부대 배치
• 1월~12월 매월 입대
〈접수중〉
※유사학원주의
(구유니티자학원)
관인 인성학원
종로1가 제일은행 본점옆

외국어 교육 1 번지!
YBM 시사영어사 직영
현대 시사 월 학원
英語·日語·中国語
● 아카데미 TOEFL
● 시사영어사 종합 TOEFL
● TOEIC·TOEIC L.C
● AFKN 청취
● TIME
● TOEFL L.C.
● VOCABULARY
● 한국인 영어회화
● 스크린 영어회화
● 파티션 영어강좌
● 영작문 연구
● 영어순해
● 영어실력 기초
● 상공종합영어
● 일본어 문법·독해
● 대학원·취업영어
● 일본어 능력시험 대비
● 일본인 일어회화
● 중국어 문법·독해
● 주말 특별 과정
ECC 영어 회화 과정
정원제·Level Test 실시
전강사 Native Speakers
본 학원에서 개발한 교재
매월 1일 개강 - 수시 등록·수강
전화 : 276-0509
파고다 공원 맞은편 시사영어사 뒤